## 사 설

# 자성의 촛불로 내일을 밝히자

세밑이다. 비록 평온한 한 해였다고 해도 많은 사람은 세밑이면 으레 아쉬움과 뉘우침이 가슴을 누르는 때이다.

그런데 올해는 온갖 흉악범이 횡행하고 지난 해 보다도 더 끔찍한 대형 안전사건과 사고가 때를 놓칠새라 숨돌릴 사이 없이 잇달아 일어나는가 하면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세도가 전국을 휩쓸다 시피하여 나라 안은 온통 벌집을 쑤신듯 걷잡을 수 없게 한 한 해였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놀라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다가는 급기야 실의에 빠져 내일을 내다 볼 수 없는 암담함으로 망연자실한 한 해였다.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설레임까지도 앗아가버린 1994년의 세밑에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서 일어난 지난 해의 그 대형 참사들이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마땅히 인재(人災)에 대한 각성이 있었어야 함에도 올해의 숱한 사건 사고가 여전히 사람의 잘못으로 저질러졌으니 새해라고 해서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불교계는 응분의 종교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불교가 업보를 강조하는 인연을 설하며 연기를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입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정화를 통하여 사회정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성과 노력이 여느 때 보다도 교계에 팽배했던 것은 혼탁한 사회로부터 받은 자극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한 예로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의 개혁불사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자정(自淨)과 개혁이 없이는 종단 자체로서도 그러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존립의 의미를 잃을 것이므로 법난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전종도가 합심하여 이루어 낸 조계종의 개혁불사는 그러한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불교정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개혁불사로서 두 불사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없음을 차제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이 개혁불사의 의미를 높이 함과 동시에 그 귀추에 대한 기대 또한 작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밖에 올해 발족한 불교텔리비젼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점에서도 매우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에 있어서 텔리비젼이 대중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또 미래에 있어서도 그 위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함에도 텔리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가 불교계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대사회적 기능이 그만큼 좁은 영역에 갇혀 있었고 따라서 다양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불교계가 텔리비전방송을 갖게 되므로써 대중사회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특히 불교텔리비전방송의 설립이 주식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이 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독점되다 시피한 활동에 일반이 참여하는 개방된 시대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불교의 일반화와 보편화와 생활화에 속도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인간의 생활을 떠난 불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형해화할 수 밖에 없다. 불교가 살기위해서는 사람의 삶속에 있어야 하고 사회의 복판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함께 숨쉬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본지(현대불교신문)의 창간 또한 의미가 작지 않다고 자부한다. 본지는 과거에서 배우고 오늘의 생활을 불교화하므로써 내일을 열어가고자 한다. 올해의 그 숱한 사건과 사고가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데서 비롯되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과거를 잊는 건망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한다. 잊을 뿐만 아니라 없앨 수 없는 과거를 없애고자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각종 공해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정 훼손되는 문화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제 민족의 문화를 아끼지 않는 민족이 삶의 바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거부하는 프랑스 도서관 직원의 대통령을 향한 읍소는 그 문화재가 저희 나라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류의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세계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시 론

# 아직 '개혁' 마무리 못했지만

김 철 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

어느덧 1994년도 저물어 간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정치면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법률안의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잦은 불협화음으로 삐거덕거리던 행정부의 허둥거림이 극심했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제1기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끝나고 제2기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사법개혁입법이 행해졌으며 대법관의 과반수가 변경되는 소용돌이에 싸였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해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수대교의 붕괴, 가스폭발, 유람선 화재 등 인재가 겹쳤던 일이다. 양친을 살해한 파렴치범이 있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세도(稅盜)들이 날뛴, 그야말로 사고연속의 해였다. 공무원사회는 복지부동에서 복지안동(伏地眼動)을 거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복지냉동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개혁으로 효율성을 찾는가 하였더니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부족으로 정기국회의 공전을 가져왔고 급기야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를 가져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법원도 사법개혁입법을 통과시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강조하였으나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검찰은 12·12사태의 기소유예 때문에 정치투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5·17, 5·18에 대한 내란죄수사에 매달리게 되어 내년에도 시끄러울 것 같다. 세도는 많이 잡아 넣었으나 끔찍한 대형 뇌물수수사건을 어물쩍 넘김으로써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사회기강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고 있다.

###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정당도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를 의식하여 계파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신민당의 반쪽 전당대회가 각목과 폭력으로 얼룩져 국민의 실망을 자아냈는가 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각 계파간의 세력다툼으로 새로운 이합집산이 행해지고 있다. 여당인 민자당도 3당합당의 원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실세인 민주계에 의한 헤게모니쟁탈에 대하여 다수파인 민정·공화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당대표제, 부총재경선제 등으로 잡음이 일 공산이 크다.

종교계에서도 개혁을 부르짖었다. 불교개혁은 새로운 총무원장체제가 구성되어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지나친 모금행위 등으로 인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일요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든가 청와대의 기도하는 모습의 공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보다 선명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종교간의 대립경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새해는 지방자치단체의 4대선거가 동시에 행해지게 될 계획이다. 6월 29일에 있을 지역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의회의원 선거 등이 동시에 있게 되어 과열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통역시와 도폐지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어수선하다.

### 세계화의 꿈을 키우자

비록 자치단체의 선거가 행해져 좀 시끄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정치를 하기 위한 기초훈련임을 명심하고 참아 나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금권선거는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제를 두고 있으며 연좌제까지 규정하고 있어 깨끗한, 돈 안드는 선거가 기대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결과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자치를 보다 민심에 합치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겠다. 내 고장 일은 내가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과연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방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앙양이 절대적으로 요망되고 있다.

선거가 없는 1994년은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동안 대형사고에 얽매어 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 행정쇄신위원에서 정부직제개혁이 단행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하겠다.

새해에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행정과 정치가 집행되어야 한다.

1995년의 지방선거는 1996년의 국회의원선거, 1997년의 대통령선거의 전초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정당체질과 선거행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대통령선거공약이었던 '안정 속의 개혁'이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만 뛰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혼란한 사회일수록 안빈낙도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을 해야 할 것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사다난했던 94년을 보내고 국제화·세계화의 꿈이 익어 갈 95년을 기대해 본다.

## 종교인구 왜 감소하나

이경숙 기자

# 기성종교 제몫 다하지 못한 탓
# 사회변화·개인주의도 큰 요인

종교인구의 감소추세는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구가 경이적인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어온 것과 비교할 때 그 원인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90년대 들어 각 종교가 자체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신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회통계조사에서 천주교를 제외한 각 종교인구의 감소추세는 우리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종교인구의 감소추세의 원인으로 다음 세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먼저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전쟁이후의 산업화 과정 등에서 기독교 등 서구종교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파고 들었다. 또 경제개발을 앞세운 독재 정치에 맞선 민주화운동등 시류에 편승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사회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영역이 다양화·전문화됨으로써 예전과 같은 종교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된다. 따라서 영향력 감소와 함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셋째는 기성종교와 종교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는데 기인한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 사찰·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지나친 금전강요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재연해 왔던 분규·재산싸움 등 비리가 세인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고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왔다는 점이 주 감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승용 박사(종교학, 한국종교 연구회장)는 "과거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국가 공공영역의, 시민 사회영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종교영역 역시 국가권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반면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는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을 대표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종교는 집권자로부터는 체제정당성의 보강을, 사회로부터는 시민사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요구받아 마음껏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이제 종교는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도 아니고, 모든 사회문제를 대행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감소되었다."며 한국 종교인의 감소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해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종교에 냉담해 지는 것은 종교가 그 사회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보시와 헌신등 종교적 삶보다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삶을 살려는 현대인들의 가치관 때문"이라 지적했다.

스님은 외부로 보여지는 종교인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고 실천하며 삶의 지표로 살아가려는 불자가 늘어나는 질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조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는 타종교와 달리 불교인구 감소는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내다 봤다.

정교수는 "불교가 청소년 포교라든가 직장법회·재가불자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중생들 삶의 고뇌에 뛰어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포교방안의 혁신을 역설했다. 정교수는 "관광사찰에 모여드는 인파에게만이라도 삶을 위한 '무엇'을 준다면 불교인구 감소는 걱정안해도 될 일"이라고 대비책으로 조직적·효율적 포교를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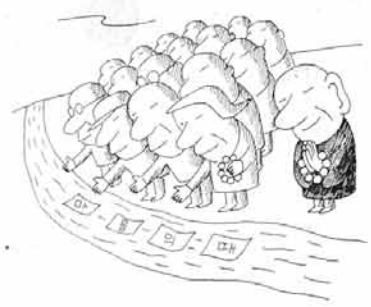
타종교와 달리 불교인구의 감소 원인으로는 고령화인구가 많은 불교인의 사망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젊은 층에 대한 포교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불교이념 즉 부처님 가르침을 살아숨쉬게 한다면 불교인구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종교가 스스로의 반성적 자각없이 시대적 역할을 망각하고 편협된 종교적 도그마에 갇히거나 세속적 물욕에 빠져든다면 필연적으로 종교인구는 감소될 수 밖에 없다.

한국불교 역시 2천만이라는, 허수에만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화와 개혁에 단합된 힘을 쏟아부어 종교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명확해졌다.

## 현대만평

박구원



한해를 보내며…

모든 불자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새해 새날이 되시길 기원하나이다.

乙亥元旦

(사) 한국불교대원회

이 사 장 박 윤 혼
상임이사 이 지 행
법회회장 이 상 우
관음회장 예 치 만
선행회장 김금련화
합창단장 정 이 순
청년회장 김 두 성

대원불교대학

학 장 허 성 구
법사단장 오 경 환
동문회장 김 용 직
27기회장 이 태 구
28기회장 강 희 병
29기회장 박 문 규
30기회장 임 명 성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간 • 교계 최고의 강사진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 | | | | | | | |
|---|---|---|---|---|---|---|---|
| 1학년 | 1학기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한국불교사 | 인도불교사 | 불전개설 | |
| | 2학기 | 불교입문 | 화엄사상 | 밀교사상 | 법화사상 | 정토사상 | |
| 2학년 | 1학기 | 의식이론 | 반야사상 | 포교방법론 | 불교미술 | 유식철학 | |
| | 2학기 | 의식실수 | 불교상담학 | 불교복지론 | 종교사및종교학 | 원전강독Ⅱ | |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FAX: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